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여는 골로새서-

이사야 45:18, 골로새서 1:15-17

정윤돈 목사님

* 사45:18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 골1:15-17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전 인류가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며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을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가 되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하도록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후대를 위해, 선교를 위해 생명 걸고 올인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성도 중에 혹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과 시험에 빠지거나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힌 성도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 응답과 해답을 얻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미션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절이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절기가 많이 소개되어있는데,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 중 맥추절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맥추절을 지키는 건 한 해의 소출을 기념하는 날이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한지 50일 되는 오순절과 같은 날이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하다.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육신적으로는 곡식을 추수한 날이고, 영적으로는 말씀을 받은 날이다. 오순절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이 임한 날이 되었다. 초대교회가 탄생한 날이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오늘날 장로교는 맥추감사주일의 지킨다. 이스라엘의 달력과 현대 달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맥추절을 지키지만 우리는 맥추감사일을 지키고, 매해 7월 첫 주를 지나다보니 한 해의 중간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한 해의 절반을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추가하게 되었다. 신약의 절기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광야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배드렸다.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을 피해 가정과 토굴에서 예배드렸다. 현대에 와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과 성도의 집이 교회인 것처럼 절기가 점차 발전해나간다. 구약시대에는 성탄절도 없었을 것이다. 오늘 맥추감사절은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절기임을 아시기 바란다.

오늘은 골로새서 말씀을 나누려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삼위 하나님 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이사야 45장 1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창조하시되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으셨다”고 명확히 말씀하고 있다. 바른 성경에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곳으로 지으셨다”고 번역하였고, 공동번역성경에서는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빚어 만들었다”고 번역했다. 진화론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제가 바닷가에서 태어났는데, 6시간 동안 물이 빠지고 돌아오는 조수 간만의 차와 심지가 태풍도 필요하다. 태풍과 달이 없으면 바다가 다 썩는다. 다 필요하다. 번개가 쳐야 비료가 만들어진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다. 비타민C 하나만 없어도 사람이 죽는다. 사람은 환경이 조금만 변해도 불편하고 어려워진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그냥 구주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셨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신다. 다른 게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예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참된 성공자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종교와 부와 권세도 인간의 근본문제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결국에는 인간을 구원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가끔 살다 보면 가정과 직장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때도 감사하고 용서하고 기뻐하라는 말씀이 떠올라야 한다. 저는 ‘말씀이 없었다면 큰 실수를 했겠구나’ 할 때가 수없이 많다. 나는 부족하고 말씀이 내 것 되지 않았는데 흥내만 내도 응답을 받는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복음 안에 깊이 들어오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충분, 모든 것 되는 그 날이 여러분에게 올 것이다. 성경에는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이 있다고 했다.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결론하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모든 것이 충만해지는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기 바란다. 그러면 복음과 그리스도는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되실 것이다.

오늘은 골로새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한다. 골로새서도 옥중서신 중 하나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에게 보낸 편지이다. 골로새교회의 담임목사는 ‘에바브라’였다. 골로새서 1장 7절에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 에바브라는 에베소의 두란노서원에서 훈련받은 제자였을 것이다. 에바브라가 복음훈련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웠는데, 그 안에 유대주의와 철학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기록한 목적도 유대주의 사상과 헬라의 철학사상이 교회에 들어와서 복음과 그리스도와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잘못된 지식과 종교혼합적인 지식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짧은 골로새서를 통하여 교회와 복음과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설명해 주고 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나와 이익과 쾌락과 세상 밖에 모른다. 그게 다 불완전한 것들이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의 원리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한다. 랍넛트들은 세상의 잘못된 지식에 속지 않아야 한다. 철학과 사상이 많다. 자본주의나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답이 아니다. 다 불완전하다. 우리는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원수도 사랑하는 복음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사람은 치유할 수 없다. 여러분이 치유의 절대방대를 세워야 한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원한 소망과 풍요가 있다는 복된 소식을 증거하는 길이 성삼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전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란다.

1. 골로새교회의 문제들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1) 첫 번째로 당시 골로새교회에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사상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리스와 로마 철학이 훌륭하지만 천지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지식에 비해서는 새 밭의 피다. 현대에서는 대표적인 ‘헛된 속임수’가 진화론이다. 그리고 공산주의, 과학만능주의 등 여러 가지 사상과 지식들이다. 필요하지만 잘못 신봉하면 속을 수 있다.

(2) 두 번째로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왔다. 영지주의는 영만 선택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념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으로 오셨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9절을 통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반박하는 말씀이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땅도 저주를 받았다. 인간이 거듭나면 모든 만물도 아름답게 거듭날 것이다.

(3) 유대주의 사상 중에서 특히 할레주의 사상이 들어왔다. 할레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할레는 그리스도의 할레라고 가르치고 있다. 구약시대에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구원을 받지만 신약시대에는 오신 메시아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

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할례는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들의 마음과 영혼에 하는 할례이다.

(4) 네 번째로 골로새교회 안으로 유대주의의 율법사상이 들어왔다. 당시에는 각종 절기와 율법이 많이 있었다. 그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음식의 법과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제칠일안식교는 절기를 다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율법에는 기준이 없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도 없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한다. 사실 그 구약의 절기도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당시는 냉장고도 없어서 정결법이 필요했던 시대다. 당시에는 그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율법이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렇게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유대인은 그걸 가지고 지금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에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지금은 날마다 주일이고 날마다 성경공부를 해야 한다. 또는 어떤 분들은 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한 분이 있다. 저희 아버지는 일 년에 한 번 예배를 드리셨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면 된다. 복음은 완전, 충분,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5) 또한 경건주의, 신비주의, 천사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라고 말씀하고 있다. 경건주의자들의 겸손은 사실 꾸며낸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천사들에게 기도하는 전통이 있다. 또한 신비주의자들은 헛되이 과장하는 경우가 많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잘못된 비복음적인 자세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였던 것이다. 치유 중에 가장 중요한 치유는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치유하는 것이다.

2. 골로새서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하여 말씀중심으로 알아보겠다.

(1) 골로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다. ① 골로새서 1장 14절에는 '죄 사함을 얻게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이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오직 예수 안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 하고, 또 넘어지면 회개할 수 있는 것이다. 용서받았으니 죄 지어도 된다고 하는 건 망용이다. ② 골로새서 1장 15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③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말씀하고 있다.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인간 중에 없고 오직 하나님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④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는 교회론 신학의 핵심이다.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시라" 우리는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가기 때문에 말씀대로 교회가 운영되고 따라가야 한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한다. ⑤ 또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골로새서 1장 19절에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도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시대마다 예수님과 복음이 주어진 나라가 잘 살게 되었다. 로마에 복음이 들어갈 때, 스위스에 복음이 개척되었을 때, 영국에 복음이 있을 때, 미국과 한국에 복음이 있을 때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다. 복음이 희미해지면 나라들이 다 문제가 생긴다.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개인과 나라가 된다. 여러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2) 두 번째로 삶에 대한 내용이다. 어떤 죄와 잘못을 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삶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도록 도전해야 한다. 모두가 다 1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능에 따라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그런 사람이 최고가 된다. 골로새서 3장과 4장에서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① 골로새서 3장 1절에서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냥 성공, 돈, 아파트 따라가다 보면 인생 끝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무엇을 하든지 세계복음화와 복음을 위해서 하시기 바란다. 3장 2절에는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는 게 일반 악의 뿌리다. 돈이 절대기준이면 그 인생은 일반 악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②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③ 3장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④ 3장 9절에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⑤ 3장 10절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세상에서 배웠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다 새롭게 세팅해야 한다. 배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충분히 배워라. 하나님은 요셉도 최고의 현장으로 보내서 세계화했다. 세상의 것을 배우고 객관적인 실력을 갖추서 복음으로 세계화해야 한다. ⑥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피차 용서하고 온전히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거룩하고 사랑 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다 중요하지만,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고 했다. 저도 불만스러운 일들이 있지만 불만을 생각하면 불행하게 된다.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우리가 불만발평하고 정죄할 수 있겠나. ⑦ 또 3장 1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절대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0.1초만 역사해도 우주를 열 번도 더 만들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속지 말고 문제를 통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기도해라.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오히려 추억이 돼라. ⑧ 평강을 지키는 방법을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⑨ 3장 18절에서 21절은 가정에서 대한 내용이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며 과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⑩ 직장생활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22절부터 "종들이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이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푸시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이다" ⑪ 가장 필요한 게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했다.

오늘은 7.7.7기도 즉 7만대, 7여정, 7이정표 기도문 중에서 7만대 기도를 하겠다. 7만대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3시대, 오력, 공중권세 결박, CVDIP, 세 가지 뜯이다.

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마음, 영혼, 몸, 모든 것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② 보좌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시공간초월과 237능력이 내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내 생명과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전후후무한 답을 내 학업에, 내 현장에, 교회에 주옵소서. ③ 하나님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속에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④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⑤ 나에게 시공간초월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 이기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⑥ 나에게 미리 보는 CVDIP축복을 지금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⑦ 세 가지 뜯 그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끝으로 어떠한 세상의 지식과 철학과 과학과 종교 앞에서도 전도망대, 선교망대, 치유망대를 세우기 위해 완전 충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의 종인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 소중한 맥추절 날 우리에게 말씀의 중요성을 되새기도록 하심에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완전히 거듭나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충만하여 충만함을 누리는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되도록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를 살리는 복음화하는 국가가 되도록 하옵소서. 그리스도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